

	제목	작가	출판사	내용
1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	사계절	몬스터로 변하는 주인공이 약물을 통해 변신을 억제하는데 오히려 몬스터로 변신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만나면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이다 애니메이션 <늑대아이>도 생각나는 좋은 작품
2	어항에 사는 소년	강리오	소원나무	열네살 영유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학교에 가면 집 주소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사채업자가 엄마를 찾아오니까. 영유에게 친구는 물고기 스피너 뿐이다.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재를, 딱총을 쏘아서 구해주면서 영유에게 난생 처음 친구가 생긴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다루지만 영유를 지지하는 현재와 중국집 배달형이 등장하기에 따뜻한 결말로 끝남
3	조선태인 살롱	신현수	자음과모음	주인공 강체리는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을 함. 현대로 돌아가려면 실어증에 걸린 조선의 공주를 치료해야함. 강체리는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처럼 조선판 꽃미녀. 효연공주는 반대로 현대판 꽃미녀이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알아주지 않기에 자존감이 바닥임. 강체리는 화장술을 통해 효연공주의 자존감을 올려야하는데... 그 와중에 효림대군이랑 씬도 타느라 바쁨.
4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다산책방	열 다섯에 곰, 기린, 비둘기 등 각종 동물로 변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옴.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냄. 라텔로 변하는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특히 재밌음.
5	가짜 모범생	손현주	특별한 서재	선희는 전교 1등 쌍둥이형 건취가 자살한 뒤 엄마의 욕심 때문에 형 대신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림. 건취는 공부를 잘했지만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다가 상대방 목을 졸라 죽게 만듦. 엄마는 그런 건취 대신 선희에게 대신 목을 졸랐다고 증언하게 만듦. 하지만 건취는 어느 날 자살하고, 전교 1등에 집착하는 엄마는 선희에게 공부를 더 잘하라고 요구함. 부모가 만든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희의 고민이 드러나는 소설.
6	카페, 공장	이진	자음과모음	서울에서 핫한 카페를 다녀온 여고생 정, 민서, 영진, 나혜는 동네의 빈 공장에서 ‘카페, 공장’을 열어서 돈을 벌. 진상 손님들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고 원두커피 내리는 방법도 연구하고 베이커리를 연구하여 팜. 그러던 어느 날 빈 공장의 주인이 나타나는데...
7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꽃님	우리 학교	소설 첫 시작에 고등학생 커플 중 여자아이 신발이 저수지에 발견되고 남자아이는 사라지는 내용이 나옴. 고등학생 커플의 가스라이팅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다니 페이지 터너라 불리는 작가의 책이 맞음.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걸까? 누군가를 만날 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 걸까?
8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이꽃님	문학 동네	지오는 유도를 하는 여자애로 정주에 내려오게 됨. 여기에서 만난 유찬은 남자애로 전교 1등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아이임. 유찬은 어렸을 적 화재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기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함. 새별이는 고 2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동생이 2명이나 있음. 새별이는 유도 국가 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같은 학교 상준이가 괴롭혀도 꼭 참고 열심히 운동함. 남 경사는 지오의 아빠인데 새별이 열세살에 저지른 방화를 덮어줌. 유찬이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지오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리지 않아 지오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김.
9	비스킷	김선미	위즈덤하우스	제성, 효진, 덕환이는 친구. 셋은 비스킷을 도와주는 역할, 비스킷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비스킷이 된 서도주를 도와 온라인 환경보호사이트에 연결해 줌. 형제 사이에 끼여 가정 안에서 존재감이 약해진 조제를 도와줌. 제성은 아버지에 의해 정신 병원에 입원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 제성은 우연히 알게 된 이모네 윗집에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친구들과 구출 작전을 계획함. “세상에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감이 사라지며 모두에게 소외된 사람. 나는 그들을 비스킷처럼 부른다. 구운 과자인 비스킷처럼 그들은 쉽게 부서지는 경향을 지녔다. 비스킷은 잘 쪼개지고, 만만하게 조각나며, 작은 충격에도 부스러진다” -비스킷 서문
10	나는 복어	문경민	문학 동네	주인공은 김두현으로 자현기계공고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별명은 청산가리. 엄마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 두현의 아빠는 현재 감옥에 있음. 두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강복집을 운영함. 두현의 친구로 준수가 등장하는데 준수는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한국 전력에 취업하는 게 꿈이고 또 다른 친구 재경은 원래 일반계 고등학생이었는데 전학옴. 재경의 오빠 재석은 귀금코리아에 실습을 나갔다가 중상을 입었고 재경은 귀금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함. 어느 하나 마음 편히 볼 사정이 없지만

				이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게 됨. 작가가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다 함.
11	울의 시선	김민서	창비	주인공 남중생 안울은 사람들 시선을 못 마주침.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생긴 버릇. 안울은 공부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서진욱과 공부를 곧잘 하는 부잣집 아들 김민우와 말 많은 분위 메이커 김동휘와 친구. 하지만 안울은 진심을 주지 않음. 그런 안울 앞에 옆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도해가 나타남. 여름에도 긴팔을 덮고 있는 이도해는 자신을 복극성이라 불러 달라고 함. 안울은 이도해 앞에서는 가식을 차리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함. 그러다 서진욱이 알고 보니 가난한 슈퍼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서지욱은 그걸 안울이 소문냈다 생각하지만 범인은 김민우.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안울이 이도해를 만나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함. 그리고 가짜 인관 관계가 아닌 진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움. 나아가 남들에게 손을 내미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그림.
12	너에게 남은 시간 죽음의 디데이	이혜린	풀빛	주인공은 중3 류담. 류담은 8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음. 이후 류담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적힌 죽음의 디데이가 보이는 능력을 얻게 됨. 초등학교 6학년 때 디데이가 보였던 친한 친구 동우를 살리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그 뒤로 사람들과 철저히 거리를 둠. 그런 류담에게 성격이 밝고 명랑한 반장 소미소가 다가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류담이 소미소와 텔보 아저씨를 통해 사람들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13	브로콜리를 좋아해?	김지현	사계 절	유진이는 남들처럼 살기를 희망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의 18살 여고생. 절친 은오는 고2 때 자퇴를 하였는데 사실 유진은 은오가 자신의 곁을 떠난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유진이는 곁에는 활발한 성격을 지닌, 빈 교실의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관중이라는 뒷담을 듣는 여학생 수현이 있음. 유진이는 같은 반 남학생 회원을 좋아하게 됨. 회원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안 먹게 되어서 도시락을 싸옴. 유진이는 회원에게 다가가기 위해 도시락을 싸게 됨. 유진은 수현과 회원 셋이서 매일 도시락을 먹고, 채식 급식 레시피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더 가까워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보통의 삶이 아닌, 끼니를 직접 지어먹는 어른, 고양이가 다가오고 싶은 어른을 꿈꾸는 10대를 보여줌.
14	네가 되어 줄게	조남주	문학 동네	중학생 자녀가 집에서 방문을 쿵 닫는다면, 그건 놀랍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어려움. 여기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와 딸이 있음. 계획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엄마와 즉흥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딸, 1980년생 엄마와 2010년생

				딸의 몸이 타임슬립한 시간 배경 속에서 서로 바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다소 흔한 주제를 신박하게 전개.
15	내일의 피크닉	강석희	책폴	특성화고 친구들 이야기. “스무 살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다 도입부에 나오는 문장. 수안과 연은 같은 보육원 출신. 수안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였고, 연은 콜센터 일을 함. 해원도 연과 같이 콜센터 일을 함. 자살을 한 연은 비가 오는 날 혼자 남은 수안 앞에 빗방울을 타고 나타남. ‘바라는 법을 버리는 법’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이 있음. 그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책. 텔레비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는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매끈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보여주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소풍갈 사람만 있다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
16	시한부	백은별	바른 북스	“나 이번 크리스마스에 죽을 거야”신예 작가 백은별의 성장 소설 『시한부』는 우울과 방황의 경계에 선 사춘기 청소년을 섬세하게 그림. 15살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학교 현실 최전방에서 ‘자발적 시한부’를 택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폭로함.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작가는 같은 10대로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과 혼란, 죽음에 관한 고민을 『시한부』 등장인물들의 서사에 반영해 구체화함. 주인공 수아와 단짝 윤서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게도 각각의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우울’, ‘자살’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줌.
17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 동네	중2. 한참 사춘기. 엄마보다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 주인공 다현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친구들이 좋다는 것만 함. 그 아이들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싫어도 좋은 척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이상하게 그때는 무리지어 노는 게 좋아보임. 좋다가 보단 ‘잘 나간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남한테 맞춰주는 거 말고 나 혼자 우뚝 서는 거. 그 용기에 박수를 쳐 주고 싶은 소설.
18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우리 학교	주인공인 주연과 서은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 두 사람이 크게 싸운 어느 날,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서은이 시체로 발견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주연이 체포됨.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연은 그날의 일도 무지 기억나지 않음. 주연은 정말 서은을 죽였을까? 이야기는 주연과 서은에 대해 증언하는 열일곱 명의 인터뷰와 주연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됨. 인터뷰에 따라 주연과 서은이 어떤 아이였는지, 둘의 관계는 어땠는지가 시시각각 변모해 감. 반전에 반전!

19	네임스티커	황보나	문학 동네	중학생 은서는 어느 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강민구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재욱이 요즘 들어 잠을 못 자는 이유도, 공부 잘하던 양도훈의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도 모두 자기 때문이라는 것. 조그만 네임 스티커에 이름을 써서 화분에 붙이고 원가를 빌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민구, 그리고 그 힘을 이제 너를 위해 쓰고 싶다고 말하는 민구의 뜬금없는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꾸만 같은 말을 두 번 하게 만드는 아이, 말을 할 때 사람 눈을 잘 쳐다보지 않는 민구지만 데이케어센터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세심하게 챙기는 행동을 보면 심성은 착한 애 같기도 한데..
20	엑엑이가 그곳에 있었다.	이로아	문학 동네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과 분투를 통해, 기억과 애도, 연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 “비로소 알았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야 잊어 가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돌아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면 나는 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반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나로부터 시작된 기억은 점차 퍼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가 기억하는 날, 나는 비로소 간간이 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억하려 애쓰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엑엑이는 그곳에 있었다. 하수도 아래가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가 잊고, 우리가 지워 버린 그 자리에. 바로 여기에. 궁금하죠?
21	불량한주스 가게(불량 한주스가게)	유하순	푸른 책들	학교 폭력 가해자로 무기정학을 받은 주인공에게, 엄마는 주스가게를 맡기고 여행을 간다고 한다. 진짜 '강함'의 의미를 깨닫는 성장이야기
22	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리	비룡 소	소년 조너스는 ‘기억 보유자’라는 직위를 부여받아 원로로 대우받는다. 선임 기억 보유자는 이제 ‘기억 전달자’가 되어 조너스에게 과거의 기억을 전해 준다. 이 과정에서 조너스는 완벽한 사회를 위해 희생된 진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23	나는 초콜릿의	타라 설리번	푸른 숲주 니어	아동 노동 착취와 학대가 이뤄지는 카카오농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다. 청소년 강제 노동의 참상을 볼 수 있는 소설책.

	달콤함을 모릅니다			
24	완득이	김려령	창비	불우한 가정환경에 공부도 못 하지만 싸움을 잘 하는 완득이와 유쾌한 선생님 '똥주'의 이야기
25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죽은 막내 '천지'가 남기고 간 메시지를 추적하는 시크한 성격의 언니 '민지'의 이야기
26	까칠한 재석이 달라졌다	고정욱	애플 북스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가진 거라곤 큰 덩치와 의리뿐인 황재석의 이야기
27	독고숨에게 반하면	허진희	문학 동네	마녀라고 불리는 독고숨에 관한 이야기 독고숨은 진짜 마녀일까?
28	옥수수 뽕소니	박상기	창비	마을 사람들의 열등감과 욕망의 충돌로 인해 벌어지는 옥수수 밭 털기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29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경혜	바람 의아 이들	중학생인 유미가 전학 왔다가 모범생 재준이와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30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 돌	스미레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학교에 일진무리들과 가오잡는 아이들, 공부를 완전히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충격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31	어쩌다보니 왕따	좌백	우리 학교	만년 왕따에 관한 엉뚱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
32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 옆의 자	겉만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고 상대를 믿고 기회를 주면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을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33	파란만장 내 인생	구경미	문학 과지 성사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재혼으로 상처를 입은 동이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네 집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성장을 다루는 이야기
34	조커와 나	김종미	창비	청소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 장면이 나타난 단편집.
35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호중	창비	『불량한 자전거 여행』은 파탄 직전의 엄마 아빠와 6학년 호진이의 가족 이야기면서 호진이가 12일 동안 자전거 여행 참가자 9명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36	고요한 우연	김수빈	문학 동네	주인공 수현의 시선 끝에 언제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인 같은 반 친구 '고요'와 '정후'가 있다. 수현은 동경의 대상도 평범한 자신과 비슷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자신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주인공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37	구미호 식당	박현숙	특별한 서재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두 사람에게 49일간의 삶이 주어진다. 죽음 앞에 쿨한 도영과 누군가를 간절히 찾으려는 아저씨의 좌충우돌 49일이 수수께끼처럼 펼쳐지는데, 과연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38	블랙박스	황지영	우리 학교	친구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아픈 기억을 가진 15살 고을이, 사고 현장(블랙박스) 영상을 흥밋거리로 여기며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상처를 딛고 나아가 보려는 이야기.